

효성, 4/4분기 영업이익 “충격”

60억원으로 91.2% 격감 ... 원화강세 타격에 일회성 손실로

효성(대표 조석래·이상운·김재학)이 2012년 4/4분기 영업실적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증권기업들이 2월27일 효성에 대한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효성은 2012년 4/4분기 매출액이 3조417억원으로 3/4분기에 비해 8.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무려 91.2% 격감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이익 감소와 일회성 손실 300억원 등이 영업실적 부진 원인으로 꼽혔다. 중공업 부문은 적자폭이 감소했으나 산업재와 화학부문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효성이 2013년에도 빠른 영업실적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예상보다 저조한 4/4분기 영업실적과 엔화약세 우려를 반영해 2013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32.3%, 2014년 16.0% 하향 조정했으며, 효성에 대한 목표주가도 기존 7만5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다.

김승우 연구원은 “엔화약세로 중공업부문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큰 폭의 주가 조정에도 상승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증권도 효성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9만원에서 7만1000원으로 내렸다.

김동건 연구원은 “중공업 영업실적 회복 및 화학업황 개선속도 지연과 타이어코드 수익성 둔화 등을 반영해 2013년 EPS를 35.7%, 2014년 35.2%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나 하반기 중공업의 수익성 회복과 타이어·화학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며 “1/4분기 영업이익은 41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TB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9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렸으며, 영업실적 회복이 지연되겠지만 중공업부문 흑자전환 전망은 유효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유영국 연구원은 “애초 기대했던 2013년 상반기 중 중공업 영업실적 흑자 전환이 원화 강세 등으로 하반기로 미루어질 것”이라며 “전반적인 영업실적은 2013년 4/4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27>